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행원리 해녀 인터뷰

해녀: 김영자, 강등자

인터뷰 : 좌혜경(Q로 기록), 000 (Q2로 기록)

인터뷰 대상자 : 김영자(1937년생, 만 81세, A로 기록), 강등자(1937년생, 만 81세, B로 기록)

두 해녀 모두 육지로 바깥물질을 하면서 중간 중간 살다 와서인지 발음이 제주도 토박이 사람들 발음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Q :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 해 줘서.

A : 예, 저, 그 소란 막 이제 먼 바당에 가민 막 그냥 소라도 많이 나오곡, 이제 저 살렘 시간은 막 새끼덜 이제 키웁수다. 저 물 소곶에서 그 소라 새끼덜을 막 키우는데, 이제 7월 1일 부터 이제 바당을 금합니다. 금허민 이제 저 10월 초 하루 날은 이제 바당 허채시켜. 해녀덜. 조물렌. 경허영 이제 허민 바당에 먼바당에 나가민 막 첨 첫 번 혈 땀 고동이 막 이서기에 나야 이제 첨 망태덜 골라기네 허영 막 허여수계마는 옛날엔 소라값도 아니가 곡 뭐 해부난 해주마는 이젠 소라값도 잘 가곡 해부난 이제도 경허영 나가민 막 망태덜 골라기네 막 상군덜 들어옵니다게

Q : 소라는 어떤 바당에서 잘 낚니까.

A : 막 이. 소라는 그냥 이, 저 그 물 밑에 가민 막 여가 많이 이십주게 그디 가민 그냥 가랑챙이고, 우이고 기냥 이 뭐 허여가민 햇빛보젠 소라가 다 고망에 들어갔단 다 나와마 씬. 경 형 이제 다 나오민 막 첨 뭐허곡, 또 들어갈 고리엔 고망에 들어가민 또 고망에서 또 허영 잡아당 졸곡 경 허는데, 감태 밧디나 구제기 밧디나 가민 기냥 이 바다에 그냥 문딱 다 소라라~. 경형 허는데 옛날엔 소라값도 엇어불고 허여부난 이제 안 잡아나네 뭐 햇주마는 이젠 막 소라값이 그냥 좋아놓고 허노난 이제도 막 혼 망태씩 백(100)kg로씩, 오십(50)kg로씩, 칠십(70)kg로씩 막 팔십(80)kg로씩 헉니께. 상군덜. 경 해주마는 이제 뭐 해연 우린 이제 다 늙어지난 바다에도 못가곡, 허어, 어떤 땀 막 하고 싶습니다. 우미도 이번 막 해가난 가그젠 해도 아방도 가지말렌 허고 혼 3년 설러노난 이젠 가고 싶으지도 안해 마썸.

Q : 소라는 알을 썩니까?. 어떻

A : 알, 알, 알~. 알 싸그네 이제 막 우미 해당 널민 막 소라 새끼가 막 그냥 우미 건너나민 막 그냥 과작 과작합니다. 게난 이제 삼번차, 삼번 보민 이제 널 모리 이제 터기네 현덴 헉니다마는 이제 금지 혈 거. 7월 1일 되민 이제 금지 했당 이제 10월 이제 1일 되민 이제 터기네 그 땀 이제 이제??지 잡아넉니께.

Q : 그 우미 혈 때 거문 소라 새끼덜이

A : 야. 경허난 우미 못허게 허여. 게난 우미 기운을 딱 이제

B : 소라 저 우미 해나민 소라 알이 이서. 쥬쥬헌거

A : 널어난디 이제 걸으민 문딱 소라 알이라.

B : 건디 올린 어서. 그런 것이

Q : 소라 알은 어떻게 생겨수과?

B : 소라굴이

Q : 아~. 소라가 직접 그거를
A : 알을 알을 알을 싸그네
B : 만들어 만들어. 만든 알이 존존하게
A : 존존허영 이제 막 콩방울만씩 허국, 어떤건 크국 허민
B : 콩방울만씩
A : 다 이제 그걸 우미 견얼 마른 우밀 견어나민 그냥 비다닥합니다게. 경허민 그냥 물질 금지 시킵니까. 경허민 7월, 8월, 9월, 10월 나사 이제 금지 시켰다기네 텀니까
Q : 알을 낳는게 아니고 새끼를 낳는구나
A : 새끼 싸끼 새끼 싸끼
Q : 새끼를 속에서 깨워서 뭐
A : 응
B : 그러는가봐
Q :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데 많이 이서 마썸?
A : 그 물에가민 뭐 험 돌 빌레 바당에 다 여가 이시민 그디 감태덜이영 구제기덜이영 막 나민 그 아래 그냥
B : 고랑챙이민
A : 고랑챙이도 잇곡 그냥 그냥 영 밋밋, 밋밋헌디도 잇곡
B : 머들팍디.
A : 머들팍디도 잇곡.
B : 머들팍디 가민 그냥 그런 고동 훑은 고동 잡곡, 모살 바위 그냥 군머들팍디가민 그런 고동 잡고 여에
A : 바당에 바당에 모살통 어신 모살통만 어시민 다 여 아니짜?
B : 바당에 그냥 여 가에 가민
A : 문딱 여라. 모살통 골려볼민 다 여라. 게난 이제 큰여, 족은여, 셴굴, 셋셴굴, 옷셴굴 알 셴굴, 뭐 벌러진 여, 뭐
Q : 오조여
A : 오조여, 오조연 그냥 내(川)주만은
B : 오조여 배꽃딘
A : 여 이름을 다
B : 큰 여 알
A : 난 두린여, 무신여, 뭐 다. 너분여, 배꽃디도 다 여 천지로노난 모살통 골려볼민 다 여, 여라. 경 허민 그 여에 좃앙 가민 사름 아니 부떠난 여에 가민 막 망태 골릅주.
B : 머흘팍디 가민 우글우글 고동이 잇주
A : 머흘 팍디영
B : 전복도 잇고
A : 전복도 잇곡, 옛날엔 막 뭐헤나수게마는 이젠
Q : 고동은 그냥 손으로 잡는 거라?
A : 응 손으로
Q : 뭐~ 골갱이로
B : 아니아니
A : 아니 기냥손으로 가그네 그냥 잡앙 기냥

B : 조락덜 차기네

A : 조락덜 차기네 허여 그냥

B : 육지서 고치

A : 육지서 고치, 육지서 고치, 육지서 고치 조락 차그네

B : 여기선 조락을 안 차봐신디 이젠 육지서 고치 그런 물질 허그네 조락 창 와그네

A : 난 양~, 육지 물질 그냥 가명 오명 그냥 혼 7년을 해 노난 난 양, 제주 물질은 안 해 봐
수다. 제주 살젠 허난 그냥 시누이 바당에 간 죽어부난에 우리 시아방 그때 고무옷 나던
해란게, 천장에간 돌아맨 풀 7치 죽어불카부덴 산디, 물에 노시 못 뎡기게 허여. 계난
스물 일곱7지 이제 육지만 육지만 가명 오명 이제 강화도로 열로 울산으로 막 이 뭐
허명 부산으로 허연 뎡기명 이제 해노난 제주 물질은 경 심들이 안해봐수다. 경 제주물질
허젠 허난 시누이 그냥 바당에 간 죽어부난 우리 시아방 그냥 고무옷 천장에 강 돌아메
부난 몬 물에들레 몬 못가게 해부난, 큰년 이제 스물 일곱에 나서. 스물하나에 결혼 해
도. 스물일곱에 나네 시누이 죽은디 큰독이렌 헌디 강 녹져놔 된 시누이 좃오난 좃아집니
까? 못좃안 이젠 기냥 저 뒷날 이제 저 한동 베계질에서 그 한동 짐수회 그냥 뭐 허연
기냥 또 뒷물 받안에 도백이 물로 받았. 그 뒷날 좃아서. 경허연 그냥 허난 시아방 죽어
분 후제사 이제 뭐 했주 배울때만 제주 물질 헛주 시아방 죽어분 후제사 심들이 허단 그
냥 설러수다게

Q : 전복은 어떤 데 많이 이십니까?

A : 이 고랑챙이 닳은디, 또 등돌에여미

B : 너부작 너부작

A : 너부작 옆더진디도 잇곡, 경험니께.

B : 모살밭디 강

Q : 전복을 어떻게 잡아 마썸.

A : 그 빗창, 빗창 이수다 빗창. 전복 터는 빗창이 있어.

B : 두령박 심곡, 혼착 이 등따리엔 비창 차곡 행 들어강 보민, 구쟁기 전복 하더라마는 숨이
쭈란 못허더라

A : 계난 이제 열여덟(18)엔 육지 가난 또 저 복촌 해녀가 그냥 그 제비섬 밧장에 잇는디 등
돌 그냥 헛무레 우미무레 허단 비오난, 헛무레 허여그네 이제 그냥 뭐허연 등더레 닷배
찬 허난, 등더레 감겨전 그냥 나오젠 허난 숨사 먹어신디 어떻 허산디게 죽어부난 제비섬
밧장이네 놔난 그냥 추치난 숨 돌아옵니까. 그냥 죽언. 그디서 물긔 헌다 무신거 헌다 허
연 이젠 아이고 이거 육지 뎡길 것이 아니로구나 허연 이제 기냥 헛번 헛번 열여덟에 가
노난 헛번 물질을 가노난, 울산서. 아이고 이거 육지 안뎡길로구나 허여그네 이제 열여덟
열아홉에 안갓어. 스무술 나는 해부떠 이제 그냥 육지 뎡김시작 헛게 기냥 칠년(7)을 다
년 우리 아방도 이제 저 우리 배 구허영 살게 아무것도 엇이난 아덜 다섯 성제에 아무것
도 엇이난 뺄 구허영 살아가네 허야 악에 걸리민 돈 못벌영 사난 우리 뺄구허영 살아가
네 허야 삼년만 살민 죽은 밧사 못 삼으로 보리 혼말지기사 못 상 삼니께 허난, 당신도
그걸 기쁘게 들어신구라 해군으로 지원행 가불고, 나도 그냥 육지 뎡김 시작 헛게 7년을
다년 첨. 벌어당 몬 시아방 손에 심지난, 시아방은 몰 샐다가 썬 샐다가 허명, 그냥 땅
이 어시난 땅에만 투자해서 마썸. 땅이 어시난. 경허연 이제도록 고생고생 허명 살아오난
이젠 영 나이들어가난 허리도 아프고, 허허. 종애도 아프고

Q : 전복은 알을 어떻게 낚니까?

A : 것도 이제 뭐허연 교미허연 남십디주게. 뭐 고기덜 다 먹어불고
 B : 구제기 입에 다 감심구라
 A : 구제기덜이영 옛날엔
 Q : 거문 전복 빗창으로 잘못 찌르면은 되잖아
 A : 응 죽어, 죽어.
 Q : 어떤식으로 해야 그계
 A : 영 허연 그계 아시락 헌달로 강 허영 비창 들렁 영 자쳐사(오른손을 왼쪽으로 비스듬이 누르듯이 살짝 내리면서) 오뚱하게 일어나주 경 안허민 빠짝 들어부찌민
 B : 그냥 솔 박아비영 안되고
 A : 솔 박아불구 그냥 막 큰건 이제 빗창질 해 가민 기냥 다 깨지곡 뭐 험니께. 영 아시락 허민 요추룩 허명 부뜨민 빗창을 들렁 영 자쳐사주. (손을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돌리면서..) 영 자치민 솔 끊어져비영 안되어.
 B : 솔에 가불민 안되어. 등더레 영 탁 자쳐사주.
 A : 경허고 우리 커울때는 메역만 메역만 주로 해수게. 제주도. 메역만 메역만. 메역만 메역만 허민 이제 어멍 딱라강 물질 시키렌 허민 모살강 좁아 오라 무신거깡 해오라 허명 허민 어멍네 친군 메역 조물양 게석을 주워 경허영 혼구덕씩 정 와. 어멍 또로 부찌기네 어멍 “이거랑 돈벌이 니 허라“ 허여난 생각도 나곡, 어린 때 해난거 잊어버지지
 Q : 어린 때 어머니가 덜어 주는거?
 A : 어머니 친구덜
 B : 친구덜이
 A : 친구덜이 막 물질배왕 뭐 햄젠 혼 묶음씩 줘니께게. 경허영 게민 지어왕 게석. 게석 쥘. 경허민 어멍이 왕 이건 니 찍세 니 돈벌이 허렌 해기네 또로 부찌쥬. 허허.
 B : 뱃 남시민 그자 영 널민
 A : 메역만 메역만 옛날엔 메역만 메역만 조기 조기 해영 다 바치곡 조저
 Q : 요즘 해삼은 많이 남수광?
 A : 요샌 해삼 많이 나는 쟁입디다.
 Q : 해삼은 어떤 데 많이 이십니까?
 A : 그냥 돌 모살 바위에도 있고, 모살바위에 느란느란 있납게. 느란느란 막 그냥 양식 해노고 해노난 막 하영덜 잡으는 쟁입디다.
 Q : 바로 보여?
 A : 으응, 바로 보여, 우에서도 보이고, 물이 흰해노난. 저 전라도골이 물 날이 어두워시민 허주마는 이딘 물날이 흰해노난 우에서도 얼마든지 봐집니께. 감태나 이신디 가민 뭐허카. 듬북. 이젠 듬북도 배랑 엇어불곡, 다 오염 되어가고 해가난
 Q : 해삼은 언제 겨울에 잡잖아
 A : 이제 이제.
 B : 야나, 시월(10월)나민 혼 동짓돌 나민 잡주마는 이제도 잡긴 잼아. 이제 잡은 건 막 모살 짙은 바당에 가민 이만씩 허. 잡아오민 1키로에 2만원이엔 허던가
 Q : 그 해삼은 주로 뭘 먹읍니까?
 A : 그냥 썰영 초장도 찍영 먹곡
 Q : 아니, 가네가 뭘 먹어?
 B : 미역? 뜯것도 먹는고라 양 그 배설

A : 배설 보민 모살만 나와, 모살 7튼거 그런거 잡풀, 젓골은거 튼영 먹엄신디사 어평사 햄 신디사 잡양보민 그 배설에 다 모살. 문어는 그냥 엉덕 그 엉덕진디 보민 들어누워기네 잡아 내곡

Q : 구멍은 엇입니까?

A : 구멍 있어. 문에 들어가는 구멍. 경허민 터진단 잡젠 허민 뒤 숨어강 못잡아오민 돌아나 불곡

B : 재수 좋으민 우에 펍석허게 앓양 폭허게 심영 나오주마는 재수 굿으민 까꾸리도 막 저레 들어가불곡 잡아댕기지도 못허곡 내비동 오민 또 들어가도 기냥 오물락오물락 문게 잡기 가 힘들어

A : 경허고 잡양 나와도 양. 워낙 큰 문겐 몸에 돌라부멍 위험허여

Q : 거른 잡고 와가지고 머리를

B : 머리 데쓰는 것도 있곡, 꼬쟁이로 꿰는 것도 있곡. 7지가 있주. 영 요만헌 줄 돌아메기네 망사리로, 그걸로 찢러기네 허곡 해야주

A : 경 안허민 망아리에 놔도 터정 돌아나비어. 나 기냥 혼번 망아리에 담아놔단 기냥 터전 돌아나부난 문게 좇으레 뎅기난 어디 좇아져.

B : 호루는 문에 하나 잡으난 그걸 물에 가웁, 저 곰쉐기 들어 왕 잡아먹어부난 그걸 심어당 들어가곡 또 들어가도 심곡, “야 니 문에 멧개 잡암디?”, “하나” “거 무사냐?” “여기 다 놓아불민 돌아나불지 안힘니까?”

A : 막 곰쉐기 들어기네 잡아먹젠만

B : 거 심은거 잡은거 하나 심은거 들어갔다 나왔다가 허난 하영 잡아덴 허연 간 보난 하나. 경허연 웃어나수다게.

Q : 구멍에도 있고?

A : 응 구멍에, 구멍에서 잡안에. 연육이 잘잡주 연육이.

B : 펍 썩 우에 앓고, 재수 존 날은 펍 썩하게 앓양

A : 연육인 먼 바당에도 아니 가곡, 굿디서만 허멍 연육이만 막 하영 잡아

B : 상군보다도 더 벌어, 이것저것 다 잡아

A : 더 벌어. 이것저것 해부난 연육이 하영 잡읍니까. 문에. 이젠 오분제긴 다 고망에 다 성 게 들영 앓아부난 오분제긴 씨 지어불고, 가당 오당이네 하나 두개 잡으카 오분제기도 이제 엇어. 이젠 막 성게로 그냥 고망 차수게.

Q : 성게는 많이 햄구나 예?

B : 올리 성게 값 좋아노난

A : 올리 값 좋안. 칠만오천원이여 얼마여 팔만원이여 해노난 막 그냥

B : 고동 잡으레도 안가고

A : 고동 잡으레도 상군덜 안가곡, 성게덜만 헨 우리 조케 각신 혼번에 육키로(6kg) 했젠 허 난 하영 벌지 안해사. 육키로(6kg)난

Q : 우미 작업은 어평 햄수과?

A : 우미작업도 이제 이번주까지 보난에 삼번주 보민 그냥 바당에 널모리 금헌덴 햄수다. 하 돈 그냥 부쩌낭 햄젠 해라. 행원은 워낙 마농이 하노난 마농에 뭐헨에 이제 뭐 헐거 아니 가

B : 오늘 물에덜 가신가?

Q : 우미는 세번?

A : 세번. 일반주, 이반주, 삼반주. 시월나사 텀니께.

B : 우미무레 해나민 막아그네 고동무렌 막을거주. 바당 금지 허민 시월나사 터메

A : 시월나사 10월1일로 텀니께.

Q : 우미는 잡으면은 어떻 분배 햄수과?

A : 우미? 이녁대로 해영 30kg씩 해영 밭 지엄수게. 마다리에

B : 마다리에 다 앓어 강 30kg씩 밭 지주 뭐. 흥 칭덜

A : 흥 칭당 삼십만원이엔?

B : 삼십만원인가?

Q : 미역작업 하면 바치는 것도 있어수광?

A : 응, 조지, 영 조지허여그네

B : 거 다 인역대로 허여

A : 이녁대로 해연 조지 채왕, 조지로 묶영 영 만일에 이제 뭐허민 마농 조지듯 영 조저기네
(녹음기를 실패처럼 실 감는 시늬를 하면서)허여.

Q : 마늘 바치고 이런 건 엇어수과?

B : 그런 건 없고

A : 수협에다

B : 군인덜 왕 살 때는 군인덜 반찬거리에 그런 국거리 ? 뜯거나 가져가주

A : 이젠 메역은 안해여. 줄메역 나고 육지 줄메역 나고 해여부난 인역 반찬 곶은거나 해당
먹는 사람은 먹주 그냥 내뵈수게. 돈도 안되고 허난에

B : 옛날엔 메역 조물양 인천 곶은데 강 풀기도 해주마는 이젠 그런것이 엇이난

Q : 군소도 잡암지 양?

A : 군소도 한머리에 천원씩

B : 키로당 2만원인가 만오천이엔 허든가

A : 만오천원.

Q : 물도세기?

A : 물토세기

Q : 그럼 전에는 안잡아나수광?

A : 전엔 안잡아났주게

B : 아니 전에는 잡아도 먹음은 해주 풀지는 안해났주게

A : 잡양 먹음은 해주. 게 안 곶암수과? 옛날엔 고동도 잡아당 모상 젓도 해먹곡, 기냥 숲양
도 찍영 먹곡 허주마는 이젠 다 돈이라부난 먹지덜도 안허영 마 그냥 뭐허여

Q : 그다음 툫은?

A : 툫은 이제 수협에 허영 바치곡

Q : 그 날잡아기네

B : 날잡양 이제 멧일날 다섯물날이민 다섯물날 허곡

A : 거난 올린 저 줄 툫나부난 저 흥 마다리 이만헌 마다리로 고득 흥나 담양 오천원씩(5,000
원). 경해부단난 바당에 툫이 이만칙씩 했던 험디다. 오늘도 곶으메. 안해여부난

Q : 받아가지 안해부나

A : 응, 받아가지 안해여부난. 이만씩 험 저 거시기 어멍 곶으메

B : 올리 툫값 십오만원(150,000원)?

A : 아니. 사흘헌거 십오만원이주. 응 사흘헌거 십오만원. 그냥 마대로 푸는건 흥마다리에 이

만씩 헌 것이 오천원(5,000원)

B : 전인 몰랴그네 강 좋아노난, 훈발씩 해노난, 훈 댓넷씩 늘어기네 강 다듬어기네 이젠 뭐 허민 훈 뗏일씩 다듬젠 다듬어나수다

A : 올리 님은 한 엇우다게 툃씨 어려워.

Q : 양, 물속에 들어가민 귀 아프곡 영 허지예?

A : 경허민 닛 덜 먹언던 다 햄수게. 난 밀도 막아보지 안허고

B : 난 밀막어여. 약수먹고

Q : 귀 아프민 어떻힐거광?

A : 귀 아프민 저 무신것덜 먹엄수게.

B : 귀아프민 약먹엄수게

A : 뇌선. 뇌선도 먹곡, 사리돈 곱은거 무신거 곱은거 덜 뭐 머리덜 아픈덴 막

B : 뇌선뻬이 안먹어나서

A : 난 이제도 뇌선 먹으는 사름도 있주마는 난 물에들 때 먹어난 양 뇌선도 안먹어봐수다. 거 곰췌기 올 때가 제일 무섭주게

B : 곰췌기가 제일 무서와. 바당에 곰췌기만 엇어지민 무서울게

A : 곰췌기가 그냥 떼 곰췌기 오곡

Q : 곰췌기 오민 어떻허여

A : 무서왕 배알로~ 배알로~ 배알로 막 줌수덜이 다 막 그냥 배알로~ 배알로~ 해가민 막 물 알로 그냥 다 실 실 실 실 갑니께.

B : 배알로~ 배알로~ 허민 물알로 들어가

A : 애곰췌긴 줌수회 해친덴 헉니께. 경 떼 곰췌긴 경 안허곡

B : 뱅뱅돌멍 가. 장난 치는구라 양 뱅뱅돌멍 경 놀래게 허여

A : 애 곰췌긴 사름이영 장난친덴

Q2 : 물개?

B : 아니

A : 고래 고래 돌고래

Q2 : 수웨기?

B : 수웨기

Q2 : 아, 수웨기가 사람 공격해요?

Q : 공격은 안허는 거

B : 공격은 안허는고라 막 사름 이시민 막 뱅뱅뱅 돌다기네

A : 그냥 문게나 뉘신거나 뉘 영 내 맡으는 거 이시민 막 뱅뱅돌아기네 떠나질 안허여

B : 문게 곱은거나 이시민 이 그런거 냄새 맡앙 뱅뱅 돌아

Q2 : 사람 해치진 안잡아요?

A : 사름 해치진 안허여. 재미진건 그냥 마 줌수덜이영 옛날에사 막 불추멍 무신거멍 해주마는 요새사 가민 고무옷 입영 물에 들어가기가 바빠. 옛말덜도 안 곡곡. 옛날엔 그냥 불턱에 앓앙 놀민 놀미주마는 이젠 그냥 마 물에 가민, 옷덜 입느라, 약먹느라 무신거 해가멍 정신이 엇어

Q : 물 그디 저기 막 싹 때 작업허민 쉽지 안헉니까?

A : 응

B : 쉽주게

A : 쉽주마는 너무 싸도 이제 굿어.

Q : 무사?

A : 저 여들 하노난.

Q : 여들 하노난?

B : 여덜 하노난 아침이 이젠 조반만 먹으면 그냥 물에가

A : 여둑시 아홉시만 되면 그냥 물에 가그네 들민 세시 네시까지 샅니께.

Q : 혼물에서 여섯물 사이에서 작업 험잖아 예? 근데 왜 저기 보름이라든지 이런 때 작업허
 른 안됩니까?

A : 그 때 작업허른 되주마는 물빨이 세언. 물빨이 세언. 조금에가 물 아니 가그네 동당 허여
 그네 가 이제 작업허기가 좋주 이제 뭐 해가민 물 센덴 일곱물 날 되가민 그냥 무레 안
 시킴니께.

B : 우린 안 멘들어봐서

A : 우린 스촌해녀덜 강환도 강 곶이 물에 들어수다마는 우린 세번 들어가민 스촌 해녀덜은
 막 느려. 혼번 들어강, 우리 세번 들어강 나오민 혼번 들어가민 막 각주덜은 막 무신거허
 여그네 험니께. 경해도.

Q : 작살은 꼭 가정 다념수가?

B : 가정 다니는 사람도 있곡

A : 옛날에 우리집에 올 땐 그냥 막 고기도 우력곶은거 북바리 곶은거 하난, 서머리씩 두머리
 썩 썩나수다. 막 물에 들어가네 옛날에

Q : 그 고기덜은 어디에 있어 마썸?

A : 그 기냥 바당에 가민, 영 가랑챙이더레, 돌 트멍에,

B : 엉덕에, 영~ 돌속에 트멍 영 돌 썩에 영 붙어시민 그 작살 받아기네 제라허게 맞으면 쏘
 는거곡 경안허민 헛치기로 나가볼곡, 영 발락네 손 맞으면 영 탁 허게 쏘아지곡

A : 베끄디 나와기네 작살놀령 들어강 허민 손맞으밍 그냥 물질 베와올 때난 그냥. 옛날에 시
 아방 난 메역 조물젠 허난 시아방 저 신사라로 해연 꼬아네 크게 멩글아 쥘, 저 육지서
 부산서 물질 허단, 부산은 이녁냥으로 간 잡아 완 저 감녀(??)에 헌디강 메역도 행 오곡
 해섬도 잡아오민 인역냥으로 푸난 그냥 보게뜨에 돈 그친 날은 엇어서. 지나사나. 그저
 나가민 돈이난. 경허난 이디왕 메역 안 조물앗덴 허연 이디 오난, 육지 강 조물당 왔젠 5
 만원씩 입애리(입회비) 내렌 허연 이제 리사무소에 5만원씩, 그때 돈 5만원씩 입애리 내
 명 메역 조물안. 우리 시아방 열 네바작씩 지어내언 저 거시기로 해영 널어오민 우리올래
 ㄱ지 사름 보듯 땡기게 해영 허민 이거 성 물질이 나시카, 아시 물질이 나시카덜 허명 막
 동네 사름덜 해나서.

Q : 몰르왕

A : 몰량, 몰량 그냥 풀아십주게.

B : 칭당

A : 칭당. 60키로 혼칭. 경한 입애리 내명 5만원 입애리 내명 조문거 여둑(8)칭 조물아져선게,
 그 때 허연에 그냥. 계난에 옛날엔게 땅 값도 얼마 안가고 허난 그거 허연 우리 땅 문세
 5만원 쥘 사곡, 저 질왓 그거 5만원 쥘 사곡. 옛날엔 땅 엇어부난 난 땅만 땅만 사수다
 우린. 쉼키우명 시아방 돈 해단 심줘부난 쉼 샅다가 물 샅다가 허명 그 물풀곡 쉼 풀곡
 허명 시아방 많이 곶어 쥘주.

Q : 물속에 들어 갔당 숨 머치면 올라오고

A : 양.

Q : 숨비소리가 나오는 거?

A : 호~이 허민 그냥 숨이 짝허게

B : 호~이 행 들어가기네, 숨 촌앗당 나오민 호~이 허는게 양 오장이 시원해여